

# 부부폭력과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학대와의 관계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Violence and Children's physical, Emotional Abuse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金正玉  
박사과정 柳挑姬

Dept. of Home Management, Hyosung Catholic Univ.

Prof: Jung-Ok Kim

Doctoral Course: Do-Hee Ryu

###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Violence and Children's Physical, Emotional Abus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34 children of first, second and third grade in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Pusan and their mothers.

Two questionnaires were developed for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for measuring child abuse(Physical, Emotional) was composed of 10 and 21 items for children and questionnaire for measuring marital violence perceived by their mothers was composed of 28 item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Marital Violence.

2)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hildren's Physical, Emotional Abuse.

3)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Violence and Child Abuse.

## I. 서론

최근 10년동안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수많은 사례가 놀라울 정도로 증가되고 있으나, 과학에 기초한 국가적인 감시체제가 결여됨으로써 그 문제의 실제적인 중대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으나, 알려지고 있는 사례는 실로 놀라운 것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 발달상의 효과와 정서적인 효과는 자주 또 다른 학대의 순환이 시작되는 성년기까지 종종 연장되며, 상당히 많은 학대가 가족단위안에서 발생한다(Fryer, 1993).

가정폭력은 폭행자에 의해 한 가정의 질서가 파괴당하고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권리가 무참히도 짓밟히며 희생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안겨주는 폭력행위이다. 한 가족안에서의 폭력은 가족 구성원간의 평등성이 무시되는 힘이 강한자가 약한자를 지배하는 소유관계로 되어버려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가정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삼기보다는 사회적인권보호로서의 대책이 있어야 하고(Fryer, 1993), 이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특히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아동은 가정밖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커서는 폭력구사자가 되거나 폭력에 순응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점은 아동학대의 문제가 공동의 관심을 갖고 연구,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일깨워준다(연진영, 1992).

서울시립아동상담소에 입소한 가출아동 307명중 36.9%가 부모의 학대로 가출하고 있었다는 보고(주영희, 1984)는 아동학대의 결과가 치명적이란 사실에 있다.

심한 신체적 학대는 신체적 불구자가 되는 것 이외에 사망하는 수도 있으며, 안동현·홍강의(1987)의 보고에 의하면 1년간 부모로부터 맞아 죽은 아이가 6명이나 있었다고 한다. 예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아동학대가 어느 한 가정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는 하나 그 수가 많거나 그 결과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한 사회의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학대받는

아이의 정신상황도 심각하다. 학대받는 아이는 성인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김정준(1986)은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이는 집중력이 산만하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반항적이며 한편으로는 위축되고 대인관계 형성이 안되고 자아개념형성이 안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동학대는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가 없다. 또 어느 특정분야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아동학대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다. 결국 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 불구자로 만들어 사회에 내보낸다는 점에서 아동학대가 가출을 부추기게 하고, 가출은 청소년 범죄를 유발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가출 청소년의 생활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 청소년을 비행과 범죄로 몰아가고 있으므로,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결과를 야기시켜 일종의 사회범죄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아동학대는 정신건강과 아동발달의 분야에 알려진 사실상 모든 정서와 발달장애의 원인자 또는 선행자로서 알려졌다(Fryer, 1993).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손상하게하고, 정서에 손상을 주는 행위로서 직접적인 학대와 간접적인 학대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인 학대는 아동자신에게 습관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무시하는 행동, 폭언 및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아동을 거부하는 행동이나 표정, 언어 또는 아동의 특별한 정서적인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거나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는 것 등을 말하며, 간접적인 학대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간의, 특히 부부간의 불화에 의한 구타, 폭언 등으로서 아동에게 정신적인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김완선, 1996, 재인용).

고성혜(1992)는 교사와 정신과 의사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아동학대개념을 규정하려 하였는데, 조사결과 방임은 아동학대 개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대행위가 일어나는 전후상황은 알 수 없어도 주양육자의 행동으로 인해 아동이 분명한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받는 경우와 아동이 받는 상처

가 명시되지 않아도 아동에게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예상되는 부모의 행동과 폭언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정서적 학대영역으로는 자녀로 하여금 모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멸적·거부적·적대적·위협적·원망적 언어학대영역, 구타는 아니지만 자녀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 행동영역,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무절제한 언사를 하는 부모의 감정적 태도 영역과 이상의 결과들로 인해 아동이 받게 되는 심리적 상처영역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체벌이 용인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조차 미미한 현실이므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가장 귀중한 자원인 우리의 아동에 대하여 진정으로 돌보는 사회의 탄생을 위하여, 가정에서의 부부간의 폭력행위와 아동학대 해결을 위한 정보를 얻고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워 올바른 자녀교육방법의 기틀을 조성하여, 미래의 아동학대를 통제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시하여 급변하는 사회에서 아동이 혼란없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아동학대(신체적·정서적)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다.
3. 부부폭력과 아동학대(신체적·정서적)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1. 부부폭력이론, 2. 부부폭력과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1. 부부폭력이론

폭력의 개념은 학자나 관련 연구자들간에 완전히 합의된 정의가 없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상이한 사회단위간에도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으며 구타(battering), 학대(abuse), 폭행(assault), 폭력(violence) 등으로 구분 없이 쓰여지고 있다.

O'Brien(1971)은 폭력은 상대에게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라 하였으며, Steinmetz(1971)는 폭력이란 인가받지 않은 비합법적인 힘의 사용이라 정의하였고, Gelles(1972)는 혼육의 목적에서 자녀를 때리는 것을 규범적인 폭력(체벌)이라 하여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비규범적인 폭력과 구별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Straus(1974)도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힘을 사용하는 것을 폭력으로 보고 때리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둔 것으로써 남에게 고통과 상해를 주는 표현적 폭력과 남을 체벌하는 것으로서 신체적인 구속을 사용하는 도구적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Martin & Walters(1982)는 혼련의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힌 것을 폭력이라 하였다. Masi(1981)는 부부간의 폭력을 두 사람 사이의 합의하에 일어나는 가학적 피학적인(sado masochistic)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 없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폭력이라 하였다. Straus(1974, 1979)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상처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수행되는 행동이나 혹은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행동을 폭력이라 하였다. Gelles & Straus(1979)는 상대방에게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고 수행한 행위와 그러한 의도를 가졌다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신체적 상해는 찰싹 때리는 가벼운 고통에서 살인까지의 범위라고 하였다. Scott(1974)는 부부폭력을 배우자로부터 심각하고 반복적인 신체적 손상을 받은 것으로 정의하고, 심각성 정도로는 1) 의학적 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 2) 통원치료를 받을 정도 3) 병원에 입원할 정도 4) 사망으로 구분하고, 빈도로는 1) 습관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폭행 2) 상황에

다른 폭행 3) 악순환으로 폭행 횟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 4) 주기적으로 폭행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서명선(1984)은 쌍방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완력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 하였고, 김정옥(1987)은 상대에게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신체적인 상해를 가한 행위라 하였고, 김갑숙(1991)은 상대방에게 완력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폭력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는 “쌍방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완력이나 도구 또는 언어를 사용하여 신체적 위협을 가하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폭력이라 정의한다.

## 2.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부부간에 갈등이 발생하면 권력 대결의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며, 부부갈등시 해결의 한 형태로서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 부부간의 폭력으로 확대되기도 하며 아동에게 확산되어 아동에게 공격을 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Komarovsky(1962)의 연구에 따르면 남편의 27%, 아내의 33%가 부부간의 갈등을 폭행과 물건을 파괴하는 등 과격한 싸움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고 하였고, Steinmetz(1971)는 남편과 아내의 30%가 그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육체적 공격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Gelles & Straus(1979)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56%가 때때로 서로 신체적 폭력을 사용한다고 하였고, 또 다른 연구에서 80가정을 대상으로 부부폭력을 조사한 결과 20%의 부부 사이에서 폭력이 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송영자(1986)는 갈등해결을 위해 27.5%가 말다툼을 하며 12.3%가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김정옥(1985)의 연구에서는 64.3%가 언쟁행동을 25.2%가 폭력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의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할 때 그것이 아동학대와 관계가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Gil(1971)은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부모의 싸움을 지적하고 있다. 신영화(1986)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폭력적인 싸움이 아동학대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폭력과 자녀학대가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Whipple(1989)의 연구에서 학대적인 아버지는 비학대적인 아버지보다 더 자주 자녀를 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Kempe(1962)도 구타받은 아동의 대부분의 부모의 결혼생활은 만족한 상태가 아니었고 이혼율이 높다고 하였고, Kussin(1988)은 종단적·횡단적 연구를 통하여 중·상류 백인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신체적 처벌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부모가 빈번하지는 않지만 한 번 이상은 구타를 하였으며, 좌절이나 분노시에 더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과 아동학대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부갈등의 해결을 위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가정은 아동 훈육에서도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Gayford, 1975; 신영화, 1986). 아동에 대한 처벌은 배우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쉽게 용납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의 내적 감정에 대한 왜곡 반응으로 자신의 갈등을 자녀에게 투사하여 구타행위를 하게된다. Straus와 그의 동료들은(1980) 남편에게 구타를 받은 아내는 그렇지 않은 아내보다 자기 자녀를 122% 더 학대한다고 하였다.

자녀학대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대받은 아동들의 임상적 자료를 이용하여 학대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고 관련변인들의 비교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관련변인별로 분류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자녀학대와 부모의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Whipple(1989)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젊은 어머니가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구타하는율이 높았다. 신영화(1986)는 일반아동과 가출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구타의 사회·인구 및 가족환경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일반아동의 경우는 부모의 연령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출아동에서는 아버지의 연령과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어 아버지의 연령이 35세 이하인 경우 신체적 학대가 가장 높다고 하였다.

신영화(1986)의 연구에서는 일반아동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인정되어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학대가 높았다. 그러나 가출아동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대가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Deutsch(1980), Hayton(1983)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학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einer(1987)는 교육수준이 낮고 생활에 있어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이 폭력적이라 하여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자녀학대도 부부폭력과 마찬가지로 실업이나 직업 수준이 낮을 때 많이 발생하고 있다. Galdston(1965)는 구타행위를 하는 아버지는 실직했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며, Gil(1970)의 연구에서도 구타하는 아버지의 50%가 구타행위를 하기 1년전부터 실직되어 있었고 12%는 구타행위 당시 무직으로 나타났다. Cantrall(1990)은 15~17세의 남학생 114명, 여학생 161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고용 상태가 갈등해결시 폭력 사용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가 실업인 경우 자녀학대가 더 빈번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직업 수준은 폭력 사용과 관계가 없었다. 우리나라의 신영화(1986)의 연구에서도 아버지가 무직인 경우 신체적 학대율이 높았고 직업 수준이 높을 때 아동 학대율이 낮았다.

또한 아동학대 부모는 다른 통제집단의 부모보다 직업에서의 능력이 부족했으며(Deutsch, 1980; Hayton, 1983), Whipple(1989)의 연구에서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가정은 수입이 낮았다.

이상의 대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아버지가 실직상태이거나 직업서열이 낮고 수입이 낮은 경우 폭력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버지가 실직하여 돈을 벌지 못하거나 자기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아버지들은 자신의 좌절감을 자녀에게로 표출시켜 다른 자질의 결핍을 보상받으려는 것

으로 보인다.

Straus팀(1980)은 10대였을 때 구타 당한 경험이 많은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 보다 그들 자신의 자녀에게 심한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였다. Cappell & Heiner(1990)도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공격을 받은 여성은 그들의 자녀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Cantrall(1990)의 연구에서는 출생가족에서의 학대경험은 부부간이나 형제간의 학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녀학대에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lfer & Kempe(1972)도 학대하는 부모 자신들이 어렸을 때 분노와 폭력의 대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 학대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그들의 자녀들을 학대하는 경향이 높다(Clausen, 1989; Gil, 1970;

Hayton, 1983; Kalmuss, 1984; Kempe et al., 1962)는 연구들이 제시되어 폭력의 세대간의 연속성을 지지하고 있다. 부모의 구타로 인해 정서적·심리적으로 버림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거부당할 때마다 자아와 함께 잠재되어 있던 감정으로 잠복된 우울증을 갖게 된다고 한다(Gelles, 1973). 그리하여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 폭발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Watson(1985)은 폭력관찰과 폭력경험이 많은 집단의 부모는 그들 자녀와 함께 학대적인 행동에 더 참여 할 것이라 하더라도 폭력관찰과 폭력경험이 낮은 집단에서의 부모보다 더 빈번하게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폭력의 세대간 연속성에 대한 이전의 연구에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Rosenberg(1984)는 배우자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소년들은 갈등과 폭력 노출이 높은 경우 비행행동이 더 현저하였으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소녀들은 갈등과 폭력 수준에 관계없이 공격 행동에 높은 득점을 보였다. Christopoulos(1987)은 40명의 학대받는 여성과 아이들, 40명의 일반가정의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개인과 가족의 적응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학대 받는 여성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개인과 가족의 적응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학대 받는 여성의 아들이나 딸은 내외적인 문제에

있어 위험 정도는 높았지만 소년들은 과잉공격성을 지니지는 않았고, 소년들은 희생자 같이 행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양친의 갈등이나 폭력을 목격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폭력의 세대 간 연속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다른 요인으로는, 부모가 처음부터 아이를 지키 원했는가 아닌가를 들 수 있다. 행동상의 문제를 가진 아동이, 심리적으로 호의적인 보호를 줄 수 없는 부모와 한 가족내에 있을 때, 신체적 학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학대받은 청소년은 비행 청소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인성을 가진 청소년들은 그들에게 폭력을 사용한 부모와 동일시(identification)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구나 청소년 비행이나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의 가출행동이 부모의 학대로 비롯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주영희, 1984) 사실은, 학대와 비행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아동학대는 주로 아동이 속한 가족내의 갈등이나 역기능적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한 아동일수록 반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연진영, 1992). 즉 아동이 성장한 이후 사회의 비행범죄자로 남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부부 폭력과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부부 폭력과 아동학대와의 관계규명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절차는 설문지 배포에 앞서 초등학교 1,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 인	분 류	빈 도	백분율(%)
학 년	1 학 년	100	29.9
	2 학 년	66	19.8
	3 학 년	168	50.3
성 별	남 자	169	50.6
	여 자	165	49.4
모교육수준	중졸이하	74	22.2
	고 졸	167	50.0
	대졸이상	93	27.8
부교육수준	중졸이하	53	15.9
	고 졸	143	42.8
	대졸이상	138	41.3
모연령	30 - 35세미만	120	35.9
	35 - 40세미만	171	51.2
	40세 이상	43	12.9
부부연령 차이	0 - 1년	93	27.8
	2 - 3년	101	30.2
	4 - 5년	97	29.0
	6년이상	43	12.9
결혼지속 기간	10년미만	61	18.3
	10 - 15년	243	72.8
	16년이상	30	9.0
종 교	무 교	84	25.1
	기 독 교	46	13.8
	천 주 교	36	10.8
	불 교	168	50.3
모의직업 유무	유	177	53.0
	무	157	47.0
직업지속 기간	무	157	47.0
	1년미만	80	23.9
	1년이상 5년	59	17.7
	5년이상	38	11.4
가정경제 도움	전혀안됨	134	40.1
	약간도움	125	37.4
	상당히도움	64	19.2
	전적으로부담	11	3.3
가족형태	핵	260	77.8
	확대	74	22.2
부의 직업	무 직	22	6.6
	막노동, 청소부	32	9.6
	상인, 운전기사	64	19.2
	교사, 회사원	86	25.7
	중간관리자	50	15.0
	고도 전문직	16	4.8
	기 타	64	19.2
부부배경	비슷하다	232	69.5
	시댁우세	59	17.7
	친정우세	43	12.9

2, 3학년 각 10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결과 아동의 이해도가 낮은 문항은 수정 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1996년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아동용은 조사원이 국민학교의 해당학급을 직접 방문하여 담임선생님께 질문지 내용과 작성요령, 주의사항을 잘 설명한 후 아동들에게 작성케 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록 무기명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응답자가 설문내용에 성실하고 솔직한 반응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문지와 함께 비밀보장에 대한 안내문을 편지봉투에 넣어서 잘 봉한 다음 반송봉투에 다시 넣어서 아동을 통하여 배부한 후 다음날 아동이 직접 회수함에 넣도록하여 회수하였다.

질문지는 460부를 배부하여 그중 내용 기재가 불성실 하거나 어느 한쪽의 내용기재가 부실한 경우와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없는 경우를 제외시킨 334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 1) 부부폭력척도

부부폭력의 척도는 Marshall(1992)의 SVAWS(Severity of Violence Against Woman Scale)를 번역·수정하여 사용한 박경규(1994)의 연구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SVAWS는 본래 46개의 구체적인 폭력행위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도록 수정·삭제하여 총 2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적폭력의 4문항은 나머지 24문항과 뚜렷하게 내용적 차별이 나타나 하나의 별도 요인으로 먼저 생각하고 나머지 24문항에 대한 주성분분석(PC: 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고, 요인회전은 직

각회전방식인 Varimax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수 결정은 고유치를 플랫폼한 Scree-Plot에서 첫번째 수평상태가 나타나기 전인 3개를 선정하였으며, 묶여진 3개의 요인은 전체 변수들의 총 분산을 56.8%까지 설명해 주고 있으며, 요인적재치(요인부하량)와 커무넬리티(공통분산비)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2> 부부폭력의 요인분석결과

변 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A20	.846	.080	.162	.748
A23	.804	.277	.079	.729
A15	.736	.227	.161	.712
A21	.746	.196	.060	.599
A24	.727	.264	.037	.600
A18	.706	.276	.070	.581
A14	.658	.280	.192	.549
A17	.602	.067	.335	.479
A22	.558	.162	.294	.424
A19	.484	.275	.256	.376
A16	.461	.410	-.249	.443
A10	.313	.814	-.001	.762
A11	.379	.787	.033	.765
A6	.071	.756	.163	.604
A9	.304	.747	.079	.657
A8	.454	.669	-.157	.679
A5	.088	.668	.361	.585
A12	.178	.526	.417	.483
A4	.255	.496	.433	.499
A13	.295	.468	.116	.320
A2	.339	-.125	.656	.562
A1	.289	-.012	.647	.503
A7	.067	.468	.604	.589
A3	-.078	.322	.507	.367
고유치	9.429	2.373	1.824	
분산비(%)	39.3	9.9	7.6	
누적분산(%)	39.3	49.2	56.8	

추출된 세개의 요인 적재량 중에서 그 절대치가 큰 것들을 기준으로 요인의 이름을 결정하였다.

네개의 요인들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요인 1은 신체적 폭력, 요인 2는 폭력위협, 요인 3은 상징적 폭

력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그리고 제4요인은 성적폭력으로 보아 네개의 요인으로 세부폭력을 규명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로 '전혀없다'에 1점, '1년에 한두번' 2점, '1달에 한두번' 3점, '1주일 1회이상'에 4점, '거의 매일'에 5점을 주었다.

그리고 이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내적합치도) 즉 신뢰계수(Cronbach's  $\alpha$ )는 신체적 폭력 .8443, 폭력위협은 .7561, 상징적 폭력은 .6542 그리고 성적폭력은 .8115로 매우 일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문항과 이 네개 요인에서 실제 폭력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규검정을 한 결과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성교시 원하지 않는 물건을 사용하는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실제 폭력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징적 폭력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자녀학대척도

### (1) 신체적 학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신체적 아동학대의 측정 도구는 Straus (1979)의 CTS(Conflict Tactics Scales)중에서 폭력척도를 변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CTS는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필리핀 등 지에서의 연구를 통해 국제 비교 연구의 응용성에 타당도와 신뢰도가 인정되었고 우리나라의 연구(노치영, 1988 등)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CTS는 가족간 갈등상태를 해결하기위해 취하는 행동지표들로서 논의(Reasoning: A, B, C문항), 언어적 공격(Verbal Aggression: D, E, F, G, H, I, J문항) 그리고 폭력(Violence: K, L, M, N, O, P, Q, R문항)의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CTS의 폭력척도는 폭력정도가 낮은 문항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폭력정도가 높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힘을 사용하여 신체적인 상해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N문항 이상은 아동학대나 아내학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신체적 학대의 측정도구는 N문항 이하에 해당하는 3개의 가벼운 정도의 학대(회초리사

용, 뺨 등을 때리는 행위)와 도구를 사용하여 심한 상해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N문항이상인 7개의 학대행위의 10개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CTS의 응답범주들은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각 항목의 행동빈도에 전혀 없다, 1-2회, 3-5회, 6-10회, 11-20회, 20회 이상의 범위에 걸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혀 없다, 1년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1회이상, 거의 매일 이상의 5개의 응답범주로 대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자녀학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를 각각 알아본 결과 모든 문항에서 실제로 학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모든 항목을 고려한 학대의 정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1년에 한두번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리는 것은 아동에게 잘못된 것을 인지시키기 위한 것이라 여겨 가장 낮은 처벌로 규정하고 1배, 다음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떠미는 행위, 손으로 뺨을 때리는 것을 체벌의 경우의 2배,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림, 벽을 머리에 부딪혀 때림, 굶은 막대기, 몽둥이로 때림, 사정없이 마구 때림은 체벌의 6배, 담뱃불이나 뜨거운 것으로 지짐, 칼이나 흉기로 위협함은 체벌의 10배의 학대로 정하여 모두 합한 점수를 학대정도로 나타내었다.

척도의 신뢰도는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학대행위는  $\alpha = .6159$ , 아버지의 학대행위는  $\alpha = .7126$ 이었다.

### (2) 정서적 아동학대의 측정도구

본 연구의 정서적 아동학대의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측정도구는 고성혜(1992)가 제작한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에 대한 아동학대 척도와 진현희(1993)의 연구를 참고로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경우 1점, 드물게 일어나는 경우 2점, 가끔 일어나는 경우 3점, 자주 일어나는 경우 4점으로 하는 4점 Likert 척도로서 그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아동학대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서적 학대에 대한 신뢰도(내적합치도), 즉 신뢰계수는  $\alpha = .8859$ 로 일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는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했으며, 부부폭력척도에 대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관련성이 있는 문항들을 묶어 4개 요인으로 규명하고, 이들 하위요인에 대해 신뢰도(Cronbach's  $\alpha$ )를 구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평균차이검정으로, 아동학대, 부부폭력 각각에 대하여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고, 다변량분석결과 차이를 보인 독립변인별로, 어느 하위요인에서 차이가 났는지를 단변인변량분석(Univariate F-test)을 통하여 알아본 후, 어느 집단끼리 차이가 나는지 여부를 경우에 따라 사후검정인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다. 부부폭력형태와 아동학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단순상관관계검증(Pearson's Correlation test)을 실시하였으며, 이 모든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폭력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폭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변량분석(MANOV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한 결과 부부연령차이( $F=1.799, p<.05$ ), 어머니직업유무( $F=3.115, p<.05$ ), 직업지속기간( $F=2.586, p<.01$ ), 부부배경( $F=1.994, p<.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각각 나타냈으며 <표 3>에 나타내었다. 이에 어느 부부폭력요인에서 차이가 나며 또한 차이가 난 요인에 대해서 집단구분을 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사후검정인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1>에 나타내었다.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부연령차이변인에서는 성적폭력에서 차이를 보이며 젊을수록 성적폭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년이상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아내가 직업이 있는 경우, 신체적 폭력, 폭력위협, 상징적폭력과 성적폭력 모두에서 직업이 있는 경우 더 많은 부부폭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정에 좀 소홀

<표 3> 부부폭력정도의 독립변인별 MANOVA 분석결과

독립변인	Wilks	Approx. F	Hyopth. DF	Error DF	Sig. of F
모 교육수준	.963	1.522	8	656	.146
부 교육수준	.966	1.427	8	656	.181
부부연령차이	.920	1.799	12	865.45	.045*
모 연령	.967	1.351	8	656	.215
결혼지속년수	.987	.534	8	656	.831
종 교	.959	1.147	12	865.45	.317
모직업유무	.963	3.115	4	329	.015*
직업지속기간	.911	2.586	12	865.45	.002**
가정경제도움	.969	.836	12	865.45	.613
부의 직업	.917	1.179	24	1131.51	.258
부부배경	.944	1.994	8	656	.045*
가족형태	.972	2.291	4	329	.059

\*\*  $p < .01$ , \*  $p < .05$

히 하는 경향으로 부부사이에 불협화음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아내의 직업지속기간에 따른 차이는 폭력위협에서만 차이를 보이는데, 5년이하의 근무경력자가 직업이 없거나 5년이상된 주부보다 부부폭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새로이 직업을 가진 결과 업무에서의 스트레스와 가사일에 대한 이중부담에 대한 부적응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부부배경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이 우세한 경우 폭력위협과 상징적 폭력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 전화가 1983년 6월에서 1992년 5월까지 받은 총전화상담건수에 구타상담은 전체의 32%를 차지하였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혼남녀 1,200명 중 생애기간동안 가정내에서 경험한 폭력은 가정밖의 일반인으로부터의 폭력경험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부인에게 1번이상 폭력을 행사한 남성은 50.5%였다(김광일, 1985, 한국여성개발원, 1993). 이와같이 가정폭력은 우리사회가 산업화로 인하여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변화해가는 과도기적인 젊은 세대에 주로 분포하며, 경제적 이유와 부부의 성장배경이 다를 때 거기에 따른 갈등이 폭력으로 구체화되는 경우라고 해석된다. 가정내 폭력중에서도 부부간의 폭력은 가족해체와 직접

〈표 3-1〉 부부폭력에 대한 독립변인별 단변인 분석결과 및 특성치

독립 변인	영역내용 집단구분	통계 수치	신체적 폭력	폭력 위협	상징적 폭력	성적 폭력
부부 연령 차이	0 - 1년	M SD	1.067 0.159	1.079 0.202	1.237 0.373	1.102a 0.328
	2 - 3년	M SD	1.050 0.180	1.033 0.105	1.139 0.241	1.017b 0.064
	4 - 5년	M SD	1.037 0.097	1.044 0.102	1.168 0.264	1.031b 0.110
	6년 이상	M SD	1.021 0.068	1.039 0.113	1.174 0.321	1.000b 0.000
	단변인분석	F p	1.311 0.271	1.992 0.115	1.806 0.146	4.657** 0.003
모 직업 유무	직업없음	M SD	1.024 0.093	1.035 0.121	1.138 0.237	1.023 0.108
	직업있음	M SD	1.074 0.179	1.067 0.157	1.225 0.355	1.065 0.250
	단변인분석	F p	10.314** 0.001	4.392* 0.037	6.941** 0.009	4.265* 0.040
직업 지속 기간	직업없음	M SD	1.034 0.135	1.025b 0.069	1.149 0.266	1.034 0.123
	1년 이하	M SD	1.053 0.152	1.101a 0.228	1.211 0.368	1.086 0.340
	1 - 5년	M SD	1.080 0.170	1.060ab 0.142	1.237 0.342	1.021 0.084
	6년이상	M SD	1.043 0.096	1.035b 0.100	1.151 0.197	1.026 0.197
	단변인분석	F p	1.580 0.194	5.546** 0.001	1.666 0.174	1.764 0.154
부부 배경	비슷하다	M SD	1.038 0.107	1.035b 0.095	1.144b 0.245	1.030 0.150
	시댁이 우세	M SD	1.083 0.222	1.090a 0.196	1.263a 0.384	1.059 0.204
	친정어 우세	M SD	1.047 0.164	1.070ab 0.221	1.250a 0.401	1.087 0.318
	단변인분석	F p	2.353 0.097	17.505** 0.000	5.144** 0.006	1.931 0.147

\*\*  $p < .01$ , \*  $p < .05$ : 단 a, b는 사후검정 집단구분을 표시

적으로 연결되며,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장기적이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옛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전통은 가정내의 폭력에 대한 관용과

당위성은 부부싸움에는 타인이 개입되지 않으며, 자녀에 대한 폭력은 사랑의 매로 당연시 되어 왔다. 이와같은 현상은 과거 서구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은 신성하며 사적인 존재이므로 설사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가족구성원외의 어느 누구도 개입할 권리가 없으며, 때로는 이러한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기까지 하였다(Gelles, 1974, Steinmetz, 1977).

그러나 신문이나 매스컴에 실리는 일련의 부부폭력 관련사건들은 폭력의 현실적인 존재형태를 확인시켜주며 남편의 폭력에 견디다 못한 아내가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보도(부산일보, 1997)는 폭력의 사회적 심각성을 불러일으켜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재구성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 2.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정서적)의 차이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정서적)의 정도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변량분석(MANOV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한 결과 학년( $F=4.315$ ,  $p<.01$ ), 모의 직업유무( $F=4.496$ ,  $p<.05$ ), 직업지속기간( $F=6.599$ ,  $p<.01$ ), 가정경제도움( $F=3.067$ ,  $p<.01$ ) 그리고 부의 직업( $F=2.641$ ,  $p<.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각각 나타냈으며 〈표 4〉에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어느학대요인에서 차이가 나며 또한 차이가 난 요인에 대해서 집단구분을 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사후검정인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1〉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학년별로는 모든형태(신체적, 정서적)에서 3학년이 1, 2학년보다 더 많은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년이 높아감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이 높아졌다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어머니의 직업 유무는 직업이 있는 경우의 아동이 직업이 없는 아동보다 더 많은 학대를 경험한다고 나타났으며, 이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 가사일과, 아동돌보기, 그리고 직장생활에 적응하느라

〈표 4〉 아동학대(신체적, 정서적)에 대한 독립변인별 MANOVA 분석결과

독립변인	Wilks	Approx. F	Hypoth. DF	Error DF	Sig. of F
학 년	.949	4.315	4	660	.002**
성 별	.994	.982	2	331	.376
모 교육수준	.993	.522	4	660	.719
부 교육수준	.994	.458	4	660	.766
부부연령차이	.984	.887	6	658	.503
모 연령	.986	1.111	4	660	.350
결혼지속년수	.997	.237	4	660	.917
종 교	.977	1.267	6	658	.270
모직업유무	.973	4.496	2	331	.012*
직업지속기간	.889	6.599	6	658	.000**
가정경제도움	.946	3.067	6	658	.006**
부의 직업	.909	2.641	12	652	.002**

\*\* p < .01, \* p < .05

갈등과 스트레스가 가정에서 아동을 대하는데 있어서 소홀하거나 신경질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해석되며, 아동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으므로, 문제의 전 후 연결이 안되어, 더 감정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모의 직업지속기간별로는 신체적 학대에서 차이를 보이며, 1년이하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경제도움은 신체적 학대에서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적게 행사했으며, 정서적 학대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더 많은 정서적 학대를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직업의 경우 신체적학대에서만 직업이 없거나 단순노무자인 경우 아동에게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의 뉴햄프셔대학의 연구팀이 3,780가구를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실시한 조사분석결과 자녀의 나이가 올라갈수록 체벌을 가하는 부모와 횡수는 줄어들었다고 스트라우스 박사는 말했다(대구일보, 1996). 이영희(1992)의 보고에 의하면 6세부터 13세까지의 아동이 학대아동의 69.2%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재학시기가 6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난한 가정 또는 그 수준이하의 가정에 대하여

1970년대에 영국에서 실시된 한 연구는 이들 가정에 있는 대부분의 아동들은 신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았으며 그 결혼의 반이 신체적인 폭

〈표 4-1〉 아동학대(신체적, 정서적)의 독립변인별 단변인 분석결과 및 특성치

독립변인	영역내용 집단구분	통계 수치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학 년	1 학 년	M	2.245b	3.603b
		SD	3.368	0.757
	2 학 년	M	2.098b	3.678b
		SD	4.062	0.924
3 학 년	M	3.720a	4.080a	
	SD	6.522	1.391	
	단변인분석	F	3.510**	6.426*
		p	0.002	0.031
모 직업 유무	직업 무	M	2.282	3.734
		SD	3.718	1.073
	직업 유	M	3.720	3.997
SD		6.647	1.250	
	단변인분석	F	6.120*	4.272*
		p	0.014	0.040
직업 지속 기간	직업없음	M	1.814a	3.725
		SD	2.854	1.000
	1년이하	M	5.961b	4.118
		SD	9.161	1.442
	1 - 5년	M	2.805a	3.751
SD		3.529	0.851	
5년이상	M	2.039a	4.064	
	SD	2.579	1.504	
	단변인분석	F	11.934**	2.559
		p	0.000	0.055
가정 경제 도움	직업없음	M	1.698a	3.645a
		SD	2.561	0.820
	약간도움됨	M	3.840b	4.022b
		SD	6.551	1.451
	상당히 도움	M	3.570b	3.938ab
SD		6.502	1.117	
전적 부담	M	4.727b	4.121ab	
	SD	5.198	1.106	
	단변인분석	F	4.441**	2.644*
		p	0.004	0.049

\* p < .01, \* p < .05: 단 a, b는 사후검정집단 구분을 표시

〈표 4-1〉 계속

독립변인	영역내용 집단구분	통계 수치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부의 직업	무 직	M	6.409b	3.955
		SD	9.054	1.436
	단순노무직	M	6.125b	4.281
		SD	10.475	1.406
	외판원, 기사	M	1.992a	3.813
		SD	3.267	1.116
	교 사	M	2.762a	3.722
		SD	4.467	0.913
	중간관리층	M	1.790a	3.893
		SD	2.796	1.157
고급전문직	M	1.750a	3.583	
	SD	1.807	0.678	
기 타	M	2.633a	3.882	
	SD	3.627	1.360	
단변인분석	F	4.635**	1.102	
	p	0.000	0.361	

\*  $p < .01$ , \*  $p < .05$ : 단 a, b는 사후검정집단 구분을 표시

력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Egeland & Erickson, 1989, Tonge, James & Hillam 1975)

아동학대는 경제적인 박탈에서 비롯되는 좌절감의 산물로 나타나며, 아동학대는 가족구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킬때의 경제적인 장애로 인한 고통이 표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Gelles(1985)는 불충분한 가족수입은 사회적인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스트레스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인 학대를 산출한다고 보고하였으며 Baker(1982)는 학대적인 부모들 사이에서 충동통제가 빈약한 것은 그들이 받는 경제적인 스트레스 탓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제변화가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악화시켰으며, 부모의 아동에 대한 폭력을 증가시켰다(Parson, 1985). 또한 저소득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율의 아동학대가 보고되었다(Downing, 1980). 저소득 가정들이 살고 있는 병든 이웃이 학대가 가장 넓게 퍼진 환경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Sattin & Miller, 1971). 신영화(1986)의 연구에서 경제상태가 아동학대의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학대적인 가족과 비학대적인 가족을 비교한 결과

경제적인 불안이 아동학대에 기여한 중요한 동력이었다는 것이 입증된 Baily와 Baily(1985)의 연구는 아동학대는 직접적으로 가난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에서 나온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모의 직업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변인에서 유의함이 나타난 것을 본다면 이러한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Bolton(1981)의 연구에서 젊은 여성들의 다양한 필요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동에 대하여 난폭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어머니 연령과 아동학대 변인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학력과 부학력이 아동학대와 관련이 없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Downing(1980)의 연구에서는 잘 교육받은 성인들이 양육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혐오감을 나타내는 반면에, 교육을 잘 받지 못한 부모들이 아동의 신체적 처벌을 허용 가능한 양육법이라고 보았다. 이영희(1992)의 연구에서도 무직, 노동, 부모로써 경제적으로 무능할 때,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할 경우 개인으로서 자아감을 갖기 힘들며 이런 자신에 대한 존재감 내지 불안정한 위치가 더욱 자녀에 대한 학대로 행해진다고 볼 수 있겠다.

남편이 직업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남편들은 자신의 좌절감을 가까이 있는 가족원에게로 표출하게 되는 것이 아동을 학대하거나 부부폭력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남편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심한 신체적 처벌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고 한 McKinley(1964)의 연구와 일치하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아버지는 압박감으로 인해 좌절감을 가져오며 자기통제에 필요한 부모의 심리적 기제를 약화시켜 아동을 학대하게 된다고 한(김갑숙, 199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자신의 아이들을 학대하였다고 보고된 가족의 대다수는 가난하다(Pelton, 1978). 육체노동을 하고 있었으며, 38%는 직업이 없었으며 공적부조를 받고 있었고, 또 다른 13%는 직업이 없고 공적부조를 받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가난과 아동학대 사이의 연계는 연구에 의하여 분명하게 지지되었다(Garbarino, 1990; Pelton, 1978). Goode(1971)에 의하

면 한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을수록 그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은 커지지만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을수록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줄어든다고 하였다. 폭력은 자원이 불충분하거나 부족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진다. 이것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실직상태의 집단, 직업서열이 낮은 집단과 직업서열이 높은 집단간에 차이를 보여 실직이거나 사회 승인도가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 김갑숙(199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3. 부부폭력과 아동학대(신체적, 정서적)와의 관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부폭력을 행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학대는 성적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부폭력과는 무관하게 나타났다. 성문제는 단순히 부부의 생리적·신체적인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심리적 또는 가치관념적인 문제까지 포함한 복합적인 인성의 결합으로 보면, 성적으로 적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때에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행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아동에 대한 이해나 배려를 하기보다는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부터 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부폭력의 네요인끼리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부부폭력이 많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김정옥(198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에게 구타를 많이 받을수록 자녀를 학대하는 율이 높다고 한 Straus의 보고와 일치하며, 이것은 폭력을 당한 아내는 자녀에게 자신의 고통을 투사하여 이차적인 폭력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추론할 수 있으며 Gayford(1975)의 연구에서는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이 아이를 구타하는 확률이 54%로 나타났다고 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부부간에 폭력이 많을수록 아동학대도 빈번하게 행해지

<표 5> 부부폭력과 아동학대(신체적, 정서적)와의 관계

부부폭력 아동학대	신체적폭력	폭력위협	상징적폭력	성적폭력
신체적 학대	.3230**	.4413**	.3782**	.2118**
정서적 학대	-.0091	.0269	.0808	.1224*
폭력위협	.6587**			
상징적폭력	.5671**	.6209**		
성적폭력	.3426**	.4453**	.3630**	

\*\* p < .01, \* p < .05

고 있으며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아동은 정서적 학대보다는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 깊게 인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신체적인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부부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모교육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부부폭력과 아동학대(신체적, 정서적)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부부폭력과 아동학대(신체적, 정서적)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부산시내 초등학교 1, 2, 3학년 남·녀아동 334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변인이 부부폭력과 아동학대(신체적, 정서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부부폭력이 실제로 아동학대와 상관이 있는가를 규명하여 아동학대예방과, 부부폭력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논문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폭력의 차이는 부부연령차이, 어머니 직업유무, 어머니의 직업지속기간, 부부배경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정서적)의 차이는 학년, 모의 직업유무, 직업지속기간, 가정경제도움 그리고 부의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학대가 많았으며,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 학대가 더 많이 나타났으며, 모의직업지속기간이 1년이하에서 가장 심각하

게 학대가 나타났으며, 경제적 도움정도변인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정서적 학대가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학대가 적게 나타났다. 부의 직업변인에서는 신체적 학대에서만 직업이 없거나 단순노무직인 경우 아동학대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부폭력과 아동학대와의 관계는 부부폭력이 많이 일어날수록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학대는 성적폭력을 제외한 폭력행위, 폭력위협, 상징적 폭력 요인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 【참 고 문 헌】

- 1) 고성혜(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 자녀의 지각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김갑숙(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김광일(1985).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조사. 정신건강연구. 제3집. 218-234.
- 4) 김완선(1996).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정옥(1985). 도시부부의 갈등해결표출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2), 91-110.
- 6) \_\_\_\_\_(1987). 도시부부의 폭력행위에 관한 연구-아내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김정준(1986). 교사가 인식한 영세지역 새마을유아원 어린이의 학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노치영(1988).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대구일보(1996. 4. 27).
- 10) 박경규(1994). 기혼남성의 스트레스와 폭력과의 관계분석.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1) 부산일보(1997.5.29).
- 12) 서명선(1984). 아내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구조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송영자(1986). 부부간의 갈등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신영화(1986).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 인구 및 가족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안동현·홍강의(1987). 한국에서의 아동구타현황. 김광일 편저. 가정폭력. 392-412.
- 16) 연진영(1992). 아동학대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7) 이영희(1992). 가정내 폭력의 요인에 관한 연구 -남편의 아내폭력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8) 주영희(1984). 가출아동을 통한 학대에 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 80. 71-133.
- 19) 진현희(1993).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스트레스와 정서적 아동학대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한국여성개발원(199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 21) Baily, W., & Baily, T.(1985). Etiology of neglect. In C. Mouzakis & R. Springfield, III. : Charles C. Thomas Publisher.
- 22) Baker, J. M.(1982).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Aspects of Child Abuse. In A.M. Haralambie(Ed.), Practical Child Advocacy. Denver : National Association of Counsel for Children.
- 23) Bolton, F.G.(1981). Child maltreatment and the addresscent parent : balancing the social, environmental, and individual factors. National Family Violence Research Conference. Durham, New Hampshire.
- 24) Breiner, S.J.(1987). Qu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abusing poulation. Children's Center Spring Conference(8th, Detroit).
- 25) Cantrall, P.J., Carrico, M.f., Franklin, J.n., & Grubb, H.J.(1990). BViolent tactics in family conflict relative to familial and economic factors. Psychological Reports, 66(3, pt1), 823-828.

- 26) Cappel. C., & Heiner, R.B.(1990).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amily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5(2), 135-152.
- 27) Christopoulos, C. et al.(1987). Children of abused women : I. Adjustment at time of shelter resid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3), 611-619.
- 28) Clausen, M.L.(1989). Abused youths' attitudes toward physical punishment : test of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hysical child abuse. The Florida State Univ., PH.D.
- 29) Deutsch, M.A.(1980). Who abuses and who does not : Asocial competence of child abuse. Univ. of Maryland at Baltimore. DSW.
- 30) Downigh, L.C.(1980).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ncidence, The and Trends of Child Abus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31) Fryer, G.E. Jr(1993). Child abuse & the Social Environment. Westview Press.
- 32) Galolston, R.(1965). Observation on children who have been physically abuse and their parents, *Am. J. Psychiat.*, 122. 440-443.
- 33) Garbarino, J.(1990). The human ecology of early risk. In. S.J. Meisels & J.P. Shonkoff(Eds.). *Handbook of Early Childhood interrention*(pp. 78-96).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34) Gayford, J.J.(1975). Battered wives. *Medicine, Science and the Law*. 15(4). 237-245.
- 35) Gelles, R.J. & Straus, M.A.(1978).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J.of Social Issues* 53(2). 15-39.
- 36) Gelles, R.J.(1972). The violent home : A study of physical aggression between husbands and wives. California, Sage.
- 37) Gelles, R.J.(1973). Child abuse as psychopathology : a sociological critique and reformation. *A.J. of Orthopsychiatry* 43. 611-621.
- 38) Gelles, R.J.(1985). Family Violence : What we know and can do. In E. H. Newberger & R. Bourne(Eds.), *Unhappy families*. Littleton, Mass. : Psg Publishing Co.
- 39) Gelles. R.J. & Straus. M.(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 Toward a theoretial integration. In W. Burr, R. Hill, F.I. Nye and I. Ru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I). New York : The Free Press.
- 40) Gil D.C.(1971). Violence agains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3, 637-648.
- 41) Goode, W.(1971). force and violence in the family.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624-636.
- 42) Hayton, J.M.(1983).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subsequent delinquency. California State Univ., MS.
- 43) Helfer, R.E., & Kempe, C.H.(1972). Helping the battered child and his family. Phila. J. B. Lippincott co.
- 44) Kalmuss, S.(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1). 11-19.
- 45) Kempe, C.H. et al.(1962). The battered child syndrom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81(July). 17-24.
- 46) Komarovsky, M.(1962). Blue collar marriage. New York : Random House.
- 47) Kussin, J.R.(1988). Parent attitudes and use of physical punishment as influenced by child abuse consciousness, child's age, and parental level of stress.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Los Angeles, PH.D.
- 48) Marshall L.L.(1992). Development of the severity of violence against women scales, *Journal of family* Vol.7. No.2.
- 49) Martin, M.J. & Walters, J.(1982). Familial correlates of selected typ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267-276.
- 50) Masi, D.A.(1981). *Organizing for Women : issues, Strategies, and Services*. Lexington Health.

- 51) Miller, Janet L, et al.(1971) Social Services and Social Support : Blended Programs for Families at Risk of Child Maltreatment, Child Welfare, Vol. LXVII, NO.2, March-April, 1988, p.162.
- 52) O'Brien, J.(1971). Violence in divorce-prone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4). 692-698.
- 53) Parton, N.(1985). The politics of Child Abuse. New York : ST. Martin's Press.
- 54) Pelton, L.H.(1978). Child Abuse and Neglect : The Myth of Classlessnes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8. 608-617.
- 55) Rosenberg, M.S.(1984). The impact of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on children's behavior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Univ. of Virginia, PH.D.
- 56) Scott P.D.(1974). Battered Wive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5. 33-441.
- 57) Steinmetz, S.K.(1971). Occupation and Physical punishment : A response to statu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4). 664-666.
- 58) \_\_\_\_\_ (1977). The cycle of Violence, Reinhalt and Winston Inc.
- 59) Straus, M.A.(1974). Leveling civility and violence in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1). 13-29.
- 60) \_\_\_\_\_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 scales(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75-88.
- 61) \_\_\_\_\_ (1980). Stress and child abuse. in R. Helfer & C.H Kempe(eds.), The Battered Child.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86-103.
- 62) Straus, M.A., Gelles. R.J., Steinmetz, S.(1980). Behind closed doors :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New York : anchor Books.
- 63) Whipple, E.E.(1989). The role of parental stress in physically abusive families. Univ. of Washington, PH.D.